

# 동계스포츠 불모지 전남, 바이애슬론 팀 창단

### 랍신·안나 등 전·현 국대 6명 구성...김상욱 전 국대 감독 지휘봉 전남도체육회 내일 창단식...동계스포츠 활성화·저변 확대 기대

전남도체육회가 동계 스포츠인 바이애슬론 실업팀을 창단한다.

도체육회는 23일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도체육회 바이애슬론팀 창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체육회의 바이애슬론팀 창단은 대한체육회의 동계종목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체육회는 이에 따라 창단 지원금 2억8500만원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는다.

전남체육회 바이애슬론팀은 전 대한바이애슬론연맹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김상욱 감독(50)이 지휘봉을 잡는다.

선수로는 바이애슬론 남자 국가대표 티모페이 랍신(32), 스타로두베츠(27), 전제역(33)과 여자 국가대표 표블리나 안나(36), 예카테리나(30), 추경미(33) 등 남자 일반부 3명, 여자 일반부 3명 등

전·현직 6명이다.

랍신과 예카테리나는 지난 2월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했고, 안나는 4년간 금메달 5개를 따내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예이스다.

러시아 출신 4명의 선수는 모두 한국으로 귀화했다.

전남체육회는 바이애슬론 남·여 일반부 팀 창단을 통해 동계종목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남의 열악한 저변 확대에 나선다.

초·중·고·대학팀 창단 동기를 부여하고 이와 연계한 동계스포츠 육성 기반도 구축한다.

김재무 전남체육회 회장은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통해 전남체육의 위상을 높일 준비를 마쳤다"며 "전남에서 동계스포츠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체육회 바이애슬론 팀에서 뛰게 될 예카테리나(왼쪽부터), 안나, 스타로두베츠, 랍신. <전남도체육회 제공>

## US여자오픈 출전권 한국선수 33명 획득

오는 12월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이번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들이 대거 출전 자격을 얻었다.

US여자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US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확보한 한국 선수가 이미 33명에 이르고 21일(한국시간) 밝혔다.

작년 US여자오픈에 출전한 한국 선수 22명보다 11명이나 늘어났다.

US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딴 한국 선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기존 세계랭킹 50위까지 주던 출전권을 세계랭킹 75위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USG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예선을 치르지 못하자 세계랭킹 기준 출전권을 늘렸다.

세계랭킹 50~75위에는 KLPGA투어 선수들이 많다. 53위 박민지(22), 54위 이소미(21), 64위 조정민(26), 65위 이소영(23), 70위 김아림(25), 72위 김지영(24), 73위 박채운(26)이 이 덕분 US여자오픈에 출전할 길이 열렸다.

일본에서 뛰는 58위 안선주(33)와 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74위 최은정(30)에게도 출전권이 돌아간다.

최근 10년 사이 US오픈 챔피언 이정은(24), 박성현(27), 전인지(26), 최나연(33), 유소연(30)과 최근 5년 사이 LPGA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고진영(25), 김인경(32), 이미림(30)은 일찌감치 US여자오픈 출전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KLPGA투어 상금랭킹 1~5위 최해진(21), 장하나(28), 이다연(23), 임희정(20), 조아연(20)도 US여자오픈 출전 자격이 있다.

11월 4일 아마추어 세계랭킹과 같은 달 11일 LPGA투어, LPGA 2부투어인 시메트라투어 상금랭킹으로 추가 출전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US여자오픈은 예초 6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12월 11일부터 다음 달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 광주시청 강다슬 200m도 석권 '2관왕'

### 전국시·도대항육상대회...여수시청 진민섭 장대높이뛰기 정상에 전남체중 이은빈 200m 1위...해남동초 400m 릴레이 압도적 우승

광주·전남 육상선수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1회 전국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결 2020 예전 전국대학·일반육상경기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다.

광주시청 강다슬(28)은 21일 2관왕에 올랐고 여수시청 진민섭(28)은 장대높이뛰기에서 우승했다.

강다슬은 21일 경북 예전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200m 결승에서 24초47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9일 여자일반부 100m에서 11초75로 우승했던 강다슬은 200m까지 석권하며 2관왕이 됐다.

강다슬은 200m에서는 한예슬(25초45), 김수연(인천남동구청·25초79)을 2.3위로 밀어내고 가장 먼저 결승라인을 통과했다.

지난해 광주시청 유니폼을 입은 강다슬은 200m 23초대를 노렸으나 날씨가 쌀쌀한데다 0.3m의 맞

바람이 불면서 기록에 걸림돌이 됐다.

강다슬은 이번 경기에서 부상을 완전히 털어내고 지난 지난 7월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올시즌 100m와 200m에서 좋은 기록을 낸 강다슬은 내년 한국신기록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다슬도 "지난해와 올상반기에 부상으로 안좋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 마무리 시합을 잘 마칠 수 있어 만족스럽다. 내년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한국신기록을 꼭 깨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도핑 규정 위반 의혹' 육상 나세르 징계 면해...도쿄올림픽 출전 가능

'불시 검문을 위한 소재지 보고'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았던 '단거리 천재' 살와 나세르(22·바레인)가 징계를 피했다.

세계육상연맹 도핑 문제를 다루는 선수 윤리위원회는 21일(한국시간) "나세르의 혐의를 심의한 독립위원회가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육상 선수들은 자국 연맹에 '소재지'를 보고해야 한다. 불시에 하는 도핑 테스트 등을 위해서다.

소재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도핑 검사가 갔을 때 한 시간 내로 선수가 나타나지 않고, 도핑 테스트를 기피하는 행위를 1년 안에 3차례 이상 하면 2년 이상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나세르는 2019년 3월 12일과 2020년 1월 24일에 소재지 정보 기입 규정을 어겼다.

2020년 4월 12일에는 바레인 리파에 있는 나세르의 아파트를 찾은 검사가 나세르와 만나지 못했다. 선수 윤리위원회는 이를 '3차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독립위원회의 생각은 달랐다.

나세르는 스텔한 살에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에 오른 육상 스타다. 그는 2019년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400m 결승에서 48초14의 놀라운 기록으로 우승했다. 48초14는 여자 400m 역대 3위 기록이다. 1985년 이후에 나온 최고 기록이기도 했다. 나세르가 징계 위기를 넘김에 따라 내년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도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구례군청팀이 21일 경기 안산시 안산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0 민속씨름리그 2차 안산김홍도여자장사씨름대회 여자부 단체전에서 우승한 뒤 추연호 안산시의회 의원(왼쪽), 유재수 안산시의회 의원(오른쪽)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례군청, 여자장사씨름 단체전 우승

구례군청 씨름팀이 '위더스계약 2020 제1회 안산김홍도여자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구례군청은 21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단체전 결승(팀 간 5전 3승제·개인 간 3전 2승제)에서 거제시청을 3-1로 물리쳤

다.

양운서(매화급), 김근혜(국화급), 이연우(매화급), 엄하진(국화급), 김다영(무궁화급)으로 구성된 구례군청은 양운서와 김근혜가 2점을 먼저 가져오면서 앞섰다.

무궁화급에서 이다현이 김다영을 누르면서 거제

시청이 한 점을 만회했지만, 이어진 매화급 경기에서 거제시청 한유란이 부상으로 기권하며 구례군청이 3-1로 우승을 확정했다.

구례군청은 개인전에서 3명이 2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이연우는 개인전 여자부 매화급(60kg 이하) 장사결정전(3전 2승제)에서 2위에 올랐다.

엄하진도 국화급(70kg 이하)에서 2위, 김다영도 무궁화급(80kg 이하)에서 2위를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우즈 6년만의 타이틀 방어전 "US오픈 때 보다 경기력 좋아져"

PGA 투어 조조 챔피언십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다승 기록에 도전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가 6년 만에 나서는 타이틀 방어전을 앞두고 최근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즈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크로스키의 셔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PGA 투어 조조 챔피언십(총상금 800만달러)에 출전한다.

지난해 창설돼 일본에서 1회 대회가 열린 조조 챔피언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개최지를 미국으로 옮겼다.

우즈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 PGA 투어 통산 82승을 따내 샘 스니드(미국)의 최다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즈가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건 2014년 월드골프 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이후 6년 만이다.

우즈는 조조 챔피언십 개막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이 코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왔지만 그때보다 경쟁해야 하는 선수가 많아졌다"며 "첫날부터 잘 풀려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즈가 공식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9월 US오픈 컷 탈락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US오픈 때에 비해 경기력은 좋아졌고, 준비도 더 많이 했다"며 "실제 대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2관	소리도 없이
3관	담보
4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5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언현카드
6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9관	미스터트롯: 더 무비
7관 씨네카를	미스터트롯: 더 무비, 에브리타임 아이 다이 부나베아: 원시시대 대모험
8관 씨네카를	소리도 없이, 태양의 소녀들, 종이꽃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안집시'상자투의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침몰' 여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